

한일 간의 流動하는 국민적 기억

－歷史教科書에서 安重根義舉와 伊藤博文狙擊事件,
그리고 ‘韓國併合’의 關係(1945~2007)－

신 주 백*

【국문초록】

이 글은 1909년 10월의 安重根義舉와 그 시기를 전후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침략했는가에 대해 1945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한일 두 나라의 교과서를 통시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한 논문이다.

두 나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安重根義舉에 대한 서술은 한국의 경우 1974년 교과서부터, 일본의 경우는 1994년경 교과서부터 확연히 바뀌어 갔다. 이제는 민족운동가로서의 安重根의 이미지와 그의 행위가 의병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서술이 정착되었다.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가운데 安重根義舉가 한국병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서술도 없다.

그렇지만 두 나라 역사교육은 安重根이 항일을 위한 싸움만 한 사람이란 단순 이미지 대신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갖는 문제점과 더불어 이에 저항하며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저격했다는 관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안중근의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행위였다. 지금의 시점에서 그의 행위를 폭력이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접근이다. 앞으로 安重根義舉와 伊藤博文狙擊事件, 그리고 伊藤博文에 關한 研究와 歷史教育은 각자의 존재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사회와 국제관계 그리고 반제국주의운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까지도 밝히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기억, 安重根, 伊藤博文, 역사교육,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학습지도요령, 한일관계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차례

1. 머리말
2. 義士로 재생된 기억(韓)과 다양한 기억(日)
 - 1) 한국-義士 安重根(1945~1973)
 - 2) 일본-단순 암살자 또는 역사에서 배제된 安重根(1945~1970년대 초반)
 - 3) 일본-'한국병합'을 촉진시킨자인가, 민족운동가인가(1970년대 중반~1981)
3. 기억의 일치화 과정
 - 1) 한국-의병투쟁의 연장으로서 安重根義舉(1974~)
 - 2) 일본-1982년 국제교과서 파동과 개선의 징후(1982~1992)
 - 3) 일본-'한국병합'과 무관한 민족운동가 安重根의 의거(1993~)
4. 최근의 서술경향-도달점과 한계
 - 1) 한국-주목받는 동양평화론
 - 2) 일본-일치 속에서의 미묘한 차이
5. 맺음말

1. 머리말

한일 두 나라의 학교역사교육은 상대방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생 때 형성된 상대국과 국민에 대한 이미지는 기성세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전파론의 입장에서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 정서적 우월감을 갖는 경우가 그 단적인 보기일 것이다.

문화전파론 이외에도 현재의 존재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다른 평가와 서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安重根과 伊藤博文에 관한 한일 두 나라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침략의 '원흉' 伊藤博文과 그를 죽인 義士 安重根에 대한 한국인의 영웅 이미지와 전혀 다른 伊藤博文에 관한 서술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일본에서 伊藤博文은 '일본 근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安重根義舉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초점을 두겠다. 하나는 두 나라 역사교과서에서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安重根義舉와 ‘한국병합’의 관계를 어떻게 서술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두 인물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그것이 불가피한 평가인지 아니면 역사인식을 반영한 결과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시기 두 나라의 사정과 더불어 양국의 관계사적인 측면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함께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

金正明과 中野泰雄의 저서에서 알 수 있듯이, 安重根에 관한 연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²⁾ 두 사람의 연구는 이후 安重根 연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 연구가 활성화하였다.³⁾ 엄밀히 말해 1969년 최서면이 『安重根自敘傳』을 발견한 이래, 한국에서는 이 책과 공판기록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1979년 『東洋平和論』이 발굴되었을 당시에도 이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정도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安重根에 관한 글은 1980년 육군사관학교 『雛星』 36호에 실린 김영만의 「安重根 義士의 生涯와 思想」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그때까지 발굴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고, 분량 등 논문으로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글이었다.

- 1) 중국의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는 러일전쟁 자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하얼빈에서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생략하였다.
- 2) 『安重根と日韓關係史』, 原書房, 1979 ; 『安重根 - 日韓關係の原像』, 亞紀書局, 1984.
- 3) 자세한 것은 趙珧, 「安重根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국근현대사연구』 12, 2000.3 참조.

교과서에서 安重根과 伊藤博文의 관계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분석한 글은 泉原敦史의 논문이 유일하다.⁴⁾ 그는 山川出版社의 고교 일본사 교과서 등 출판사 아홉 곳에서 1995년에 발행한 1995년판 10종과 1993년판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泉原敦史는 일본의 1995년도 교과서에서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암살한 동기를 쓰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병합과 그의 행위와의 상관성을 엄밀히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1995년의 시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경향을 올바르게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1995년이란 시점까지의 교과서 서술경향과 연구동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갖는 의미를 분석할 수 없었다. 때문에 泉原敦史는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한일 간의 인식 차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시기별 서술경향을 역사사회학적 맥락 속에서 추적하여 선행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겠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연구동향과 교육정책, 정치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시기구분이 일치할 수 없으므로 安重根義擧에 관한 교과서 서술이 바뀌는 시점을 전후로 각각 구분하겠다.

즉, 한국의 경우는 고등학교 제3차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의 『국사』 교과서가 발행된 1974년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6종의 검정 교과서가 발행된 2003년을 전후로 크게 시기를 구분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크게 다섯 시기 곧, 학습지도요령이 발행된 시점을 의식하면서 크게 패전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경까지, 1969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1972년 중일수교 등 교과서 서술을 둘러싸고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1970년대 중반경부터 1981년까지, 1982년 일본의 국제교과서과동과 그 이후부터 1992년경까지, 그리고 1989년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된 1993년경부터 2005년까지, 마지막으로 2006, 2007년으로 나누어

4) 泉原敦史, 「歴史教科書에 나타난 한일관계 : 한일병합과 安重根의 伊藤博文 처단의 記述에 대하여」 『21세기와 동양평화론』, 국가보훈처, 1996.

각각 검토하겠다.⁵⁾ 더불어 ‘제4장’ ‘최근의 서술경향’에서는 현재의 역사인식을 더욱 풍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에서 한일 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북한의 역사교과서도 함께 언급하겠다.

그런데 긴 시기의 두 나라 역사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주 많은 교과서를 분석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산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각 시기 두 나라 역사교과서의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즉, 한국의 경우 제2차 고등학교 교육과정(1963~1974) 때까지 사람들이 주로 선호했던 역사교과서는 崔南善,⁶⁾ 金庠基,⁷⁾ 李丙燾와 申奭鎬⁸⁾ 등이 집필한 책이었다. 현재의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금성출판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⁹⁾

-
- 5)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에 제정된 이래 1951년, 1955년, 1958년, 1969년, 1977년, 1989년에 각각 전면 개정되었다. 일본 측 시기구분은 이와 같은 현실도 고려하였다.
- 6) 필자가 보기에 최남선은 해방공간에서, 그리고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 즈음할 때까지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필자였다. 실제 “최남선의 역사가 아니면 강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출판업자들도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의 역사책을 출판하는데 적극적이었다. 『朝鮮中央日報』 1949.2.2 ; 『國際新聞』 1948.10.7 ; 10.24. 이와 같은 사실에 처음 주목한 연구자는 柳時賢이었다. 『崔南善의 ‘近代’認識과 ‘朝鮮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7) 1973년 문교부에서 작성한 국사교과서 저자 인세 현황을 보면, 김상기가 중학교 교과서 필자 가운데 가장 많은 1,030천원의 인세를 받았다. 김상기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860천원으로 가장 많은 인세를 받았지만, 고교 교과서에서는 170천원으로 일곱 번째였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만을 놓고 보면 이병도가 750천원, 그 다음이 480천원을 받은 신석호였다. 『보고번호 제73-328호 문교부에서 대통령에게 國史教科書의 國定化方案報告(1973.6.9)』
- 8) 이병도는 미군정청에서 발행한 첫 역사교과서인 『國史敎本』(1946)의 근현대편을 집필하였고, 그가 서술한 내용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자신만의 근현대사 인식을 제시한 사람이 『中等國史』(1948)의 신석호였다.
- 9)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2005년 현재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가장 높은 채택률을 차지하고 있는 山川出版社版의 고교일본사 교과서였다.¹⁰⁾ 그러면서도 해당 시기의 전반적인 동향을 풍부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그 중에서도 점유율 2, 3위를 기록한 적이 많은 東京書籍, 實教出版, 清水書院에서 발행한 고교일본사 교과서도 함께 분석하겠다.

이렇게 분석 대상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고교 역사교과서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고교 역사교과서는 일본과 달리 제3차~제6차 교육과정 때까지 國定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제2, 3장’에서 한일 두 나라 교과서 분석에 관한 분량에 차이가 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는 두 나라 역사교과서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확인하는데 우선 관심을 두겠다.¹¹⁾

2. 義士로 재생된 기억(韓)과 다양한 기억(日)

1) 한국－義士 安重根(1946~1973)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역사교과서는 미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國史敎本』이다. 이 책에서는 1909년 10월의

10) 山川出版社의 『常設 日本史』는 “일본사 입시의 바이블적인 존재이다. 몇 종류의 교과서 가운데 網羅性, 信賴性이 극히 높다.”, “인기 있는 참고서는 이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토 에이이치, 『일본의 역사교과서 :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2005, 252쪽.

11) 때문에 ‘제2, 3장’에서 한일 간 교과서 분석에서 분량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일본 교과서의 서술변화에 관한 시기구분이 번잡스럽더라도 이를 감수하였다.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伊藤博文暗殺 ... 이듬해 10월 26일에는 전 통감 伊藤博文이 露國 藏相 코코프체프와 만나려고 하르빈(閩爾濱)에 도착하였을 때 역두에서 우리의 의사(信用人) 安重根의 권총에 맞아 즉사하고 중근은 잡히어 이듬해 2월 7일 旅順에서 32세를 일기로 교수대위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거사는 실로 의로워 세인의 맘을 통쾌케 하였다.¹²⁾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의 손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에서는 安重根의 활동을 의로운 행위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의사 안중근’이란 관점이 해방 직후부터 일반적이었음은 최남선의 저서 『國民朝鮮歷史』를 통해서도 시사 받을 수 있다. 『國史敎本』처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李在明의 李完用 피습사건과 더불어 安重根義舉를 간략히 언급하였다.¹³⁾

‘의사 안중근’이란 관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부수립 이후 간행된 첫 역사교과서는 申奭鎬의 『中等國史』이다. 그는 安重根의 의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다섯째 조각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강탈하였는가?

② 국민의 반항 운동은 어떻게 끈기 있었는가?

... 융희 3년(4242.1909) 10월에는 의사 安重根이 나라의 큰 원수요 일제의 원흉인 伊藤博文을 하르빈에서 쏘아 죽였으며, 3세의 청년 이재명은 매국적 이완용을 칼질하고 ...¹⁴⁾

12) 『國史敎本』, 1946, 170쪽. 이병도가 집필한 부분이다.

13) 崔南善, 『國民朝鮮歷史』, 東明社, 1947, 218쪽. 최남선은 序文에서 1945년 11월 집필을 완료했음을 밝혔다. 이 책은 1955년 『우리나라 역사』(東國文化社)라는 이름으로도 발행되었다.

14) 申奭鎬, 『中等國史』, 東方文化社, 1948.8.31, 198쪽. 교과서의 표지에는 ‘문교부 신교수요목 의거 中等사회생활용’이라 쓰여 있다.

신석호는 최남선의 견해처럼 安重根의 행동을 의로운 항일운동으로 간주하며 이재명의 의거와 함께 당시의 대표적인 의열투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두 사람의 의거를 한 세트처럼 의거활동 부분에서 함께 기술하고 있다.¹⁵⁾

당연한 서술이었겠지만, 당시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처럼 安重根義舉를 한국병합과 연결 지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최남선이 집필한 교과서에는 安重根義舉와 한국병합을 관련지을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 있었다. 즉, 최남선은 安重根義舉를 기술하고, 그 다음 소항목인 ‘굴욕이 오다’ 부분에서 “합방운동(合邦運動)은 이등박문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어 일본은 그의 주구(走狗)인 일진회장 이용구를 시켜서 한일합방의견서(韓日合邦意見書)를 국민에 발표하고 황제께 상소토록 하였다.”고 기술하였다.¹⁶⁾ 마치 安重根義舉 곧, 伊藤博文暗殺事件을 ‘계기로’ 한국병합을 향해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언급한 것이다.

또한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安重根義舉를 기술한 교과서는 없었다. 제2차 교육과정 때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대한 제국의 종국(終局)’ 또는 ‘국권상실’ 등처럼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소항목의 제목 속에서 安重根義舉를 다루었다.¹⁷⁾ 심지어 이 시기를 기술할 때 安重根義舉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¹⁸⁾ 예외적인 경우는 김성철의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3) 의병(義兵)과 의사(義士)들의 활동’이란 소항목 속에서 의병투쟁을 언급하고, 이어

15) 뒤의 ‘제3장’에서 확인되었지만 지금도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편집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16) 최남선, 『고등학교 사생과 국사』, 사조사, 1964, 201쪽.

17) 김상기, 『우리나라 역사』, 장왕사, 1955, 234쪽 ; 김상기, 『고등 국사』, 장왕사, 1965, 233쪽 ; 이홍직,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동아출판사, 1971, 222쪽.

18) 이병도, 『국사』, 一潮閣, 1961 ; 이병도,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一潮閣, 1964. 이병도는 ‘한·일 병합’이란 소항목에서 주권의 상실과정을 언급하면 安重根義舉를 다루지 않았다.

田明雲과 張仁煥, 그리고 안중근과 이재명의 의거를 기술하였다.¹⁹⁾

김성철처럼 의병운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의사들의 거사도 언급하는 새로운 서술방식은, 제2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국사』 교과서의 부분 개정판이 나온 1967년부터 확대되었다. 김상기의 경우 安重根義擧를 ‘의병의 활동’이란 소항목에서 의병운동을 기술하고 이어 의사들의 투쟁을 언급하는 가운데 ‘안중근의 이토오 암살’이란 짧은 문장을 기술하였다.²⁰⁾ 신석호도 ‘5. 의병과 의사의 무력항쟁’이란 부분에서 설명하였다.²¹⁾ 문교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의병운동과 잇단 의거’라는 소항목에서 “1909년에는 안중근이 일본의 침략원흉인 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두에서 사살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염원한 것이었다.”고 하여 의거의 연속선상에서 安重根義擧를 평가하면서도 더 폭 넓은 의미를 부여하였다.²²⁾

이 시점에서 의병과 의사를 함께 설명하는 서술경향이 확대되어 간 것은 당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즉, 1960년대 중반을 경과하면서 國史編纂委員會에서 『韓國獨立運動史』 1-5(1965~1969)를 발간하는 등 항일운동사에 관한 관심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높아졌다. 그것을 자극했던 상황은 1965년 일본과의 수교였다.²³⁾ 역사학계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역사교육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민족문화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고, 항일투쟁사 연구는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安重根의 伊藤博文 저격을 의병운동

19) 김성철,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역사』, 정음사, 1950, 187쪽.

20) 김상기 외 5인, 『중학 사회』 2, 장왕사, 1967, 227~228쪽.

21) 신석호, 『인문계고등학교 국사』, 광명출판사, 1968, 227쪽. 같은 서술 태도는 1973년도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1968, 198쪽.

23) 이 시기 역사학계의 새로운 대응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신주백, 「역사교과서에서 재현된 8·15, 망각된 8·15」 『8·15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선인, 2006, 48~55쪽 참조.

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시각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전히 김성철과 같은 시각은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安重根에 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논리를 전개하기에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에 일어난 의병투쟁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에서 세계평화와 연결시켜 安重根義擧의 의의를 설명한 점은 학문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이었다. 때문에 이후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이 등장하지 않았다.

2) 일본—단순 암살자 또는 역사에서 배제된 安重根 (1945~1970년대 초반)

일본이 패전한 직후 발행한 첫 교과서는 『くにのあゆみ』이다. 이 교과서는 연합국총사령부(GHQ)의 검열을 받아 출판된 책으로 패전 직후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安重根義擧를 전후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日露戰役 …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일로협약이 체결되어 다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조선)과는 일한협약을 체결, 그 뒤 거듭 상담을 한 결과 명치 43년(서력 1910) 우리나라(일본 ; 인용자)가 한국을 병합하였습니다.²⁴⁾

한국병합으로 가는 과정 자체를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역사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安重根義擧와 같은 한국인의 저항이 서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일본정부는 패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24) 文部省, 『くにのあゆみ』 下, 1946, 42~43쪽.

역사인식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文部省의 역사인식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만든 책에서는 이 시기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비록 교과서는 아니지만, 일본의 진보적 역사연구자들이 참가한 기관의 일본사 책을 보면 앞서 언급한 서술과 다른 역사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병합 ... 이 때문에(헤이그밀사 파견 ; 인용자) 때문에 국왕은 일본으로부터 양위를 강요받고, 일본은 더 나아가 조선국의 내정도 감독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높아갔다. 초대 통감이었던 伊藤博文은 통감을 그만둔 뒤 만주를 여행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의 조선인민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은 마침내 1910년(명치 43) 조선을 일본에 합병하였다. 조선도 결국 대만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버렸다.²⁵⁾

위의 서술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일본의 억압과 한국인의 저항, 그리고 安重根義舉를 기술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日本の歴史』 책에서 이상한 점은 安重根義舉를 ‘계기로’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고 서술하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직접적인 책임이 마치 安重根에게 있는 듯이 서술한 내용이다. 이는 安重根의 행위 자체를 단순화시키면서 암살자로서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한국병합의 역사적 과정을 왜곡한 서술이다.

이상의 두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은 1950년대 검정 교과서들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安重根義舉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당연히 伊藤博文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民主主義科學者協會歷史部會・歷史學研究會 共著, 『日本の歴史』, 潮流社, 1950, 223~224쪽.

이러한 정세(일본이 동아시아의 최대강국으로 세계가 인정받게 된 상황 ; 인용자) 속에서 일본은 1910년(명치 43) 실력으로서 한국의 병합을 실행하였다. 이로부터 한국은 재차 조선으로 바뀌어져 일본의 영내로 들어와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²⁶⁾

이와 같은 서술 기조를 유지한 교과서는 山川出版社에서 발행한 것 가운데 『新修 日本史 改訂版』(1958 「見本本」), 『6訂 日本史』(1958 「見本本」)가 있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新編 日本史』(1963 檢定, 1966發行), 『新編 日本史 改訂版』(1969)에서도 같은 서술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²⁷⁾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安重根義舉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많았다. 때문에 伊藤博文과 安重根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던 교과서도 있었다.²⁸⁾ 그러다 보니 한국병합에 대한 일본의 강제성도,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가 많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3·1운동에 관해서도 전혀 기술하지 않는 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²⁹⁾

26) 宝月圭吾 著, 東京大學文學部 內 史學會 編, 『日本のあゆみ 改訂版』, 1952(見本本), 189쪽.

27) 『新編 日本史』의 저자는 뒤에서 언급할 『詳説 日本史』의 공동 저자인 宝月圭吾와 藤木邦彦이었다.

28) 西岡虎之助, 『高校日本史』, 實教出版株式會社, 1955(1차 발행), 1957 ; 彌永貞三 安田元久, 『高等日本史 初訂版』, 帝國書院, 1958(見本本) ; 廣島史學研究會 編, 『再訂日本史研究』, 柳原書店, 1959(見本本) ; 家永三郎, 『新日本史 3訂版』, 三省堂, 1959 ; 肥後和男 平田俊春 共著, 『新編 高等 日本史』, 日本書院, 1965 ; 豊田武, 『新版 要説 日本史』, 中教出版, 1968. 1964년에 발행한 『要説 日本史』, 그리고 이것의 3판(1966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9) 예를 들어 時野谷勝 原田伴彦 直木孝次郎, 『日本史』, 實教出版株式會社, 1964 참조. 1966년 발행본과 1967년 改訂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1958년도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검정심사를 받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서 1962년에 발행된 12종 가운데 3·1운동을 언급한 책은 단 3개 출판사의 교과서뿐이었다. 함창조, 『일본력사교과서들에 날조되고 있는 조선관계 서술비판』 『력사과학』 2, 1967, 39쪽.

두 번째 경향은 安重根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암살사건 자체만을 언급하는데 그친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그 보기이다.

대륙정책의 전개 ... 경성에 통감부를 두고 이것을 보호국으로 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국인 때문에 초대 통감 伊藤博文이 하얼빈역에서 암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1910년(명치 43)에는 마침내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의 산업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³⁰⁾

세 번째 경향은 安重根義舉를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위의 첫 번째 경향과 일치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安重根義舉와 한국병합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술하여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된 직접적인 책임의 일부를 安重根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침략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

진후의 국제관계 ... 통감부를 설치하고 伊藤博文이 초대 통감으로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완전하게 독립성을 빼앗겼으므로 ... 이미 일본에의 병합은 시간문제였다. 이때 발발한 伊藤博文의 암살(2) 등이 도리어 이를 앞당기게 하여 마침내 1910년(명치 43) 8월, 일한병합조약에 조인시키고 ...

(2) 1909년(명치 42) 10월 伊藤博文은 러시아와의 국교 조정을 위해 만주에 갔을 때 하얼빈역에서 한국인 安重根 때문에 암살당하였다.³¹⁾

이처럼 安重根의 伊藤博文 암살이 한국병합을 ‘도리어 앞당기게 하였다’고 기술하여 앞서도 인용한 『日本の歴史』(1950)에서 표현한 ‘계기로’라는 서술에 내재해 있는 것과 같은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교과서가 1950년대에도 있었다.

30) 小澤榮一 외 2인 共編, 『日本史 改訂版』, 清水書院, 1953, 290쪽. 1951년에 처음 발행되어 1953년에 개정 재판으로 발행된 교과서이다.

31) 宝月圭吾 藤木邦彦, 『詳説 日本史』, 山川出版社, 1959, 302쪽. 이러한 관점은 宝月圭吾 編, 『再訂 日本史』, 山川出版社, 1954 ; 宝月圭吾 編, 『五訂 日本史』, 山川出版社, 1957에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같은 ‘詳說’ 일본사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1966년판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이 없다. 즉,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각주 (2)’와 같은 내용이 1966년판 교과서의 각주에서 다시 서술되었을 뿐이고, 본문에서는 “(일본의 ; 인용자) … 보호국으로 하고, 1910년(명치 43)에는 일한병합조약에 조인시켜 한국을 조선으로 바꾸고 식민지로서 조선총독을 두었다.”고만 기술하여 안중근의 이름과 安重根義舉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³²⁾ 반면에 ‘詳說’의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집필한 ‘要說’ 일본사에서는 각주에서 안중근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같으나, “1909년(명치 42)에는 통감 伊藤博文이 만주의 하얼빈에서 암살당하였다. 그래서 다음 해 일본은 일한병합조약을 조인시키고 병합을 단행하였다.”고 서술하여 ‘계기로’라는 서술에 내재해 있는 것과 같은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³³⁾

安重根義舉와 이 사건을 전후로 전개된 일본의 한국침략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침략책임, 식민지 지배책임에 대한 자각이 희박했던 일본인들의 역사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일본 근대사에서 식민지 지배의 역사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이를 시야에 넣지 않았던 일본 역사학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첨언하자면, 식민지 지배책임과 관련하여 일본 스스로 자신의 역사인식이 갖는 문제점을 자각한 것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되었을 때였다.

32) 宝月圭吾 藤木邦彦, 『詳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1966, 254쪽. 같은 내용은 1972년 판에서도 확인된다. 宝月圭吾 藤木邦彦, 『詳說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1972, 254쪽 ; 宝月圭吾 藤木邦彦, 『詳說 日本史 再訂版』, 山川出版社, 1972, 262쪽.

33) 宝月圭吾 藤木邦彦, 『要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1967, 185쪽 ; 宝月圭吾 藤木邦彦, 『要說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1968, 184쪽 ; 宝月圭吾 藤木邦彦 외 4인, 『要說 日本史 再訂版』, 山川出版社, 1972, 187쪽.

3) 일본-‘한국병합’을 촉진시킨자인가, 민족운동가인가 (1970년대 중반~1981)

1970년대 들어서도 山川出版社에서 발행한 ‘新編’의 일본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標準’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저격한 사건 자체를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³⁴⁾ 이들 교과서는 의병운동 등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도 전혀 기술하지 않았으며, 3·1운동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安重根義擧 등을 밝히지 않은 교과서가 모두 이 시기를 왜곡되게 서술하거나 한국인의 주체적인 움직임에 관한 언급을 홀시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家永三郎의 『三省堂 新日本史』에서는 安重根義擧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인을 억눌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인이 저항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였다.³⁵⁾

1970년대 서술 경향에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70년대 중반경을 거치며 安重根의 이름을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伊藤博文이 ‘암살’당한 사실 자체를 기술한 교과서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山川出版社의 ‘要說’ 일본사 이외에도 實敎出版株式會社에서 발행한 『日本史』의 경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1977년과 1981년도 개정판 교과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지만①, 초대 통감이었던 伊藤博文이 한국인에게 암살당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10년(명치 43),

34) 宝月圭吾 藤木邦彦, 『新編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1973 ;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標準 日本史 再訂版』, 山川出版社, 1974(見本本) ; 安田元久 외 4인, 『新日本史 最新版』, 帝國書院, 1975. 1973년에 검정을 받은 교과서이다.

35) 家永三郎, 『新日本史』, 三省堂, 1975, 236쪽. 1974년에 초판으로 발행된 교과서인데, 1981년에 발행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무력으로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³⁶⁾

인용한 교과서 개정판의 원판은 1964년에 발행된 교과서였다. 당시 원판에서는 安重根義舉 자체, 달리 말하면 伊藤博文이 암살당한 사실 자체를 기술하지 않았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경향은 安重根義舉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伊藤博文이 암살당했다는데 초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安重根이란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대신에 1970년대 교과서에서는 ‘한국인’ 또는 ‘한국청년’이라고 암살의 주체를 서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³⁷⁾ 예를 들어 ‘要說’ 일본사 교과서는 1972년판까지만 해도 암살의 주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1974년 新版에서는 ‘한국의 청년’이라고 명기하였다.³⁸⁾ 암살의 주체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명시한 서술은 진전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암살의 주체가 개인인지 여러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자격인지 단체 구성원의 자격인지 등을 불분명하게 언급하며 일본인에 대칭되는 ‘한국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安重根이란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인의 불철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식민지사 교육의 회피에 관한 무자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경향은 한국인의 저항 차원에서 安重根義舉를 언급하면서도 ‘계기로’라는 용어에서 시사 받을 수 있듯이 安重根

36) 時野谷勝 原田伴彦 直木孝次郎, 『日本史 改訂版』, 實教出版株式會社, 1981, 198쪽.

37) 1960년대 교과서에서는 암살의 주체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였다. 아주 드물게 암살의 주체를 ‘한국의 민중’이라 표현한 경우는 있었다.

38)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외 7인, 『要說 日本史 新版』, 山川出版社, 1974, 174쪽;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외 7인, 『要說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1976檢定, 1980, 174쪽.

의 伊藤博文 저격사건과 한국병합의 인과관계를 더욱 간단하면서도 명확히 설명하려는 교과서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조하는 山川出版社版 역사교과서의 서술 경향에서 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 일로전후의 국제관계 ...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7년(명치 40) 제3차 일한협약으로 내정권도 획득했지만 이에 대하여 한국민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909년(명치 42) 전통감 伊藤博文이 한국청년에게 하얼빈 역두에서 암살당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다음해 일한병합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고, 새롭게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토지조사와 철도망 정비에 노력하며 식민지 지배를 추진하였다.³⁹⁾

사례 2 : 한국병합 ... 한국민은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일본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였다. 그리고 伊藤博文暗殺事件을 계기로 하여 1910년(명치 43) 마침내 한국을 병합하여 일본의 영토로 하고 조선총독부를 두고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였다.⁴⁰⁾

사례 3 : 일로전후 국제관계 ... 이에 대응하여(외교권 ‘접수’와 통감부 설치 ; 인용자) 한국은 1907년(명치 40)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황제의 밀사를 보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3차 일한협약을 체결, 한국의 內政權도 장악하였다. 그리고 1909년(명치 42)에 伊藤博文이 하얼빈역에서 한국 청년에게 암살당하자, 다음 해 한국병합을 실행하여 식민지로 삼고 조선총독부를 두었다.⁴¹⁾

이러한 서술 경향 즉, 한국인의 항일을 언급함으로써 安重根을 단순한 암살자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安重根義舉 때문에 한국병합이 추진된 것으로 서술하여 결국 그 책임을 한국인에게 떠넘기

39)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외 7인, 『詳說 日本史 新版』, 山川出版社, 1976, 282쪽. ‘詳說’ 新版的 책임필자들은 앞의 각주 38)에서 언급한 ‘要說’ 新版的 필자들과 일치한다.

40) 兒玉幸多 외 3인, 『新版 日本の歴史』, 山川出版社, 1981(見本本), 193쪽.

41) 井上光貞 笠原一南 兒玉幸多 외 10인, 『詳說 日本史 新版』, 山川出版社, 1982(見本本), 289쪽.

는 듯한 방식은 여전히 엄밀하지 못한 역사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계기로’라는 용어 자체가 식민사관을 극명하게 드러낸 단어인 것이다. 물론 山川出版社 발행의 교과서와 같은 서술은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의병운동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흡수한 측면도 있다.⁴²⁾ 197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 중에도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한국인이 저항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安重根義擧를 ‘계기로’ 한국을 병합했다고 서술한 교과서⁴³⁾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서술경향은, 세 번째 서술경향과 달리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저격한 사실을 언급하고, 더불어 한국병합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교과서가 1970년대 후반경 등장했다는 점이다.

자료 1 : 한국병합 ...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화정책에 대항하여 한국에서는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①이 일어나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910년(명치 43) 8월 ... 일한병합조약을 한국정부에 조인시켜 한국을 일본의 통치하에 편입하였다(한국병합)②.

① 의병운동은 일청전쟁 이후 조선인 민중이 일으킨 반일무장투쟁을 말한다.

42) 한국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姜在彦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姜在彦, 『朝鮮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1970 ; 姜在彦, 『近代朝鮮の思想』, 紀伊國書店, 1971 ; 姜在彦, 『近代朝鮮の變革思想』, 日本評論社, 1973.

43) 竹內理三 小西四郎, 『要說 日本の歴史』, 自由書房, 1973, 189쪽에 있는 내용이 한 보기이다. 즉, “동년 우리나라는 일한협약(일한보호조약)을 체결, 경성에 통감부를 두고 다음 해 伊藤博文이 초대 통감으로 되었다. 정부는 그 후 한국병합을 계획했지만, 1909년(명치 42) 伊藤이 하얼빈에서 한국인에게 암살당하자①, 그것을 계기로 다음 해 이것을 병합하고, 조선으로 개칭하여 완전한 지배하에 두었다.” 한국인의 저항에 관한 언급이 새로 추가된 것은 1982년에 출판된 『新日本史』(247쪽)에서 었다.

1907년(명치 40)에 한국군대가 해산을 명령받자 일층 격화하여 ... 또한 민족주의자 安重根은 1909년(명치 42)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伊藤博文을 암살하였다.⁴⁴⁾

자료 2 : 한국병합 ... 일본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함과 동시에, 한국의 구석구석까지 헌병을 상주시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취체하였다. 1909년 10월 伊藤博文은 하얼빈에서 한국인 安重根에게 저격당하여 사망하였다.

이리하여 1910년 8월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새로운 조선총독부를 설치, 현역의 육군(또는 해군) 대장을 총독으로 하는 군사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였다.⁴⁵⁾

당시 일본 역사학계에서 아직 일반화된 서술경향은 아니지만, 위의 인용문처럼 두 교과서의 서술에서 드러난 확연한 특징은 安重根의 행위를 저항이라고 간략히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운동’, ‘반일무장투쟁’, ‘독립운동’의 하나로 명백히 기술한 점이다.

새로운 서술경향이 등장한 배경에는 1970년대 중반 교과서 서술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⁴⁶⁾ 첫째, 앞서도 언급했던 일본에서의 조선사 연구의 진척만이 아니라 1968년 명치유신 100주년을 계기로 일본 근대사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점검하는 다양한 학술모임이 있었다. 둘째, 1967년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제2차 이에나가소송이 있었는데, 1970년 7월 이에나가측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⁴⁷⁾ 특히 재판부는 국가의 교육권보다 국민의 교육권이 헌법정신에

44) 宮原武夫 黒羽清隆 외 6인, 『高校日本史』, 實教出版株式會社, 1981, 268쪽. 1980년에 제1판을 발행하였다. 1984년판에도 거의 같은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45) 門脇禎二 외 5명, 『高校日本史』, 三省堂, 1980, 226~227쪽. 1979년에 초판이 발행된 교과서이다. 1983년판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있다.

46) 자세한 설명은 신주백,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의 변화(1945~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교류센터 엮음, 『민족주의와 역사교과서 - 역사 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각』, 에디터, 2005, 165~166쪽 참조.

맞으며, 역사교육은 진리교육이어야 하고, 검정이란 이름으로 교과서 필자의 사상까지 심사하는 것은 올바른 검정기준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셋째,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수교하면서 중국 사 관련 내용에 대한 再考作業이 이루어지는 등 일본의 대륙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이 바뀌어 갔다. 실제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던 東京書籍의 1975년도 교과서는 일본의 군부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중국을 침략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소항목의 제목도 중국침략 당시부터 사용해 왔던 ‘日華事變’ 대신에 ‘中日戰爭’으로 바꾸었다.⁴⁸⁾

3. 기억의 일치화 과정

1) 한국－의병투쟁의 연장으로써 安重根義學(1974~)

1960년대와 같은 서술경향 곧, 安重根義學를 義士들의 개인적 항일 투쟁의 하나로 처리하려는 관점은 1974년부터 시작된 제3차 교육과정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었다. 중학교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安重根義學를 ‘(4) 의병투쟁’ 항목이 아니라 ‘(5) 의사·열사의 무력투쟁’이란 독립된 항목에서 설명하였다.⁴⁹⁾ 이와 달리 1974년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安重根義學를 의병투쟁의 한 영역 속에서 언급하였다. 다음 인용문에서 이를 확인해 보자.

47) 흔히 이를 杉元判決이라 한다. 이에나가소송에 관한 간략한 참고는 신주백, 「평화와 인권을 옹호한 일본의 교과서운동 - 이에나가(家永)교과서소송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2001, 164~169쪽 참조.

48) 『新しい社會 歴史的 分野』, 東京書籍, 1975, 282쪽.

49) 문교부, 『중학교 국사』, 1975, 221쪽.

의병의 항전 ... 한편, 의병의 항전이 전국에서 계속되는 동안,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 역두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요 대륙 침략을 기도하던 이토 오를 총살하였고, 장인환과 전명운은 ...50)

요컨대 安重根의 義擧는 의병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교과서에서 이런 관점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1969년 安重根의 자서전이 발견되어 1970년부터 국내에 소개되었고,⁵¹⁾ 그에 관한 자료집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⁵²⁾ 또한 1970년대 들어 국내 학계에서는 『獨立軍戰鬪史』 상·하(1974, 1975) 등의 발간을 전후로 독립전쟁론이란 인식 틀을 가지고 전체적인 항일운동을 설명하는 가운데 의병운동을 자리매김하려는 관점이 정착해 갔는데 이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安重根의 행동이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점을 교과서 서술에서 더욱 명확히 언급한 시기는 제5차 교육과정 때였다. 이때 발행된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병 전쟁의 확대 ... 그리고 홍범도와 이범윤이 지휘하는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의병 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꾀하였으며, 의병으로 활약하던 安重根은 만주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되던 의병 전쟁은, 그 뒤 일본군의 이른바 남한대

50) 국사편찬위원회,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1974, 199쪽. 본문의 인용 문장은 제3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에 따라 독본용 교과서인 『시련과 극복』과 통합된 1979년 판 『국사』, 262쪽에서도 그대로 게재되었다.

51) 『안중근의사자서전』, 안중근 의사 숭모회, 1970. 자서전은 1979년에도 다시 출판되었다. 이 사이에 자서전을 바탕으로 안중근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한 글이 여러 잡지에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이현희, 「人間 安重根論」 『政經文化』 175, 京郷新聞社, 1979를 들 수 있다.

52)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6』 安重根 篇 I, 1976;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7』 安重根 篇 II, 1978.

토벌을 계기로 크게 위축되었다. ...⁵³⁾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安重根이 ‘의병으로 활약’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국정 교과서인데도 중학교의 국사교과서는 여전히 그렇지 않았다. 한말주권수호운동 차원에서 언급하더라도 ‘의병’·‘의병전쟁’과 ‘의사’를 소항목에서 구분하고, 安重根義擧는 ‘의사’ 부분에서 다루었다. 安重根의 義擧는 ‘한국침략의 원흉’인 伊藤博文을 저격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강렬한 독립 정신과 대한 남아의 기상을 보여 주었으며, 또 일본의 침략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준 개인적 행위로만 바라본 것이다.⁵⁴⁾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의병과 의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관점은 제6, 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安重根이 의병운동 출신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장을 새로 추가하고 있는 점이 이전과 다를 뿐이다. 요컨대 ‘국내외에서 의병장으로 항일전을 전개하고 있던’ 安重根이 의거를 단행했다고 서술하고 있다.⁵⁵⁾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安重根은 1910년 2월 제5회 공판이자 최후 재판에서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행위가 의병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⁵⁶⁾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나는 결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

53)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하), 1993, 101쪽.

54)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하), 1982, 111~112쪽. 이는 제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하), 1992, 86쪽.

55)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하), 1997, 114~115쪽 ;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2002, 236쪽.

56)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 범우사, 2002, 183쪽.

어 이곳에 온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므로 포로로 대접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⁷⁾ 이처럼 安重根은 자신이 의병운동의 지도자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안중근의 행위는 李在明, 田明雲 등이 개인적인 결단으로 결행한 항일투쟁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저격한 행위 자체는 집단적 투쟁방식이 아니었으므로 義舉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의병전쟁의 와중에 敵將을 狙擊한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의병전쟁의 한 투쟁방식으로 伊藤博文을 저격한 행위인 安重根義舉와 개인적 의열투쟁으로서 이재명, 전명운의 저격행위는 다르다. 따라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편집은 安重根이 의병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安重根의 행위를 왜소화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의 사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⁵⁸⁾

安重根義舉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자리매김은 의병장 출신으로 東洋平和를 위해 伊藤博文을 사살했다는 관점을 반영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제4장 1)절’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2) 일본—1982년 국제교과서 과동과 개선의 징후(1982~1992)

1970년대 후반까지도 앞의 ‘제2장 3)절’에서 언급한 네 번째 서술경향 즉, 安重根義舉를 언급하지만 한국병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술하는 교과서는 아직 예외적인 경우였다. 때문에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과 문부성의 편향검정을 국제사회에서 비판했을 때 한국정

57)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 185쪽.

58) 마찬가지로의 한계는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부에서도 安重根義擧와 그 전후의 역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國史編纂委員會의 분석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安重根 *

<일본교과서의 내용>

- 1909년 10월 전 통감 이등은 한국인 安重根에게 하르빈역에서 암살되었다(三省堂, 『日本史』, 263쪽).
- 1909년(명치 42)에 전 통감 伊藤博文이 하르빈 역두에서 한국의 청년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 (東京書籍, 『日本史』, 264쪽, 註②).

<국사편찬위원회의 내용검토>

- ▶ 安重根의 伊藤博文 사살은, 의병장으로서 한국침략의 원흉에 대한 정당한 민족적 응징이며 독립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암살로 표현하여 살해범으로 오해케 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말살하려 한 것이다.

* 韓國併合 *

<일본교과서의 내용>

- 1909년 7월에는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 진출에 대해서 한국정부 및 국민 사이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 … 일본은 한국민의 저항의 진압에 힘쓰는 한편, 한국의 병합을 서둘러 1910년 8월, 일한병합조약을 맺게 하였다(三省堂, 『日本史』, 263쪽).
- 1909년(명치 42)에 초대통감 伊藤博文(이또오 히로부미)가 암살된 것을 계기로 다음해 일한병합조약을 체결,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하여 경성에 조선총독부를 두었다(第一學習社, 『新日本史』, 242쪽).
- 한편 조선으로부터 3차에 걸친 일한조약에 의해 그 주권을 빼앗고, 1910년 조선을 병합하여 식민지화했다(帝國書院, 『新詳世界史』, 262쪽).

<국사편찬위원회의 내용검토>

- ▶ 1909년 7월 6일 일본각의는 한국의 병합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때 방침서 및 운영요강을 초안한 외무성차관은 “… (생략 ; 인용자)”고 기록했다.

그리고 1910년 병합계획을 착착 실천에 옮겼고 삼엄한 헌병·경찰의 경계 하에 일방적으로 병합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를 양국의 합의하에 병합조약을 체결한 것 같이 記述하였다.⁵⁹⁾

한국사회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安重根義擧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때는 1982년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한국병합의 합법성에 대한 비판과 ‘암살’이란 용어에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좀 더 근본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安重根과 伊藤博文 저격, 그리고 한국병합의 因果關係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로서는 ‘계기로’라는 단어가 일본의 한국지배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무의식적인 선입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주목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일본이 한국병합의 책임을 안중근에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의 문제점을 역사교육의 측면에서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1909년 4월 일본이 시안을 만들고, 7월에 그들의 내각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뒤, 곧 바로 천황의 승낙을 받은 문서인 「韓國併合に關する件」, 1909년 6월 대한제국의 경찰권에 대한 위탁각서를 통해 경찰권까지 빼앗은 과정, 의병운동 및 애국계몽운동의 상황 등을 들어 더욱 정확히 사실을 제시하며 적극 비판할 필요가 있었다.

1982년 국제교과서 파동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안중근이란 이름이 등장한 경우는 드물었다. 여전히 ‘한국 청년’의 伊藤博文저격사건을 외교권 박탈과 한국병합 사이에 시간적 순서를 따라 배치하고 기술함으로써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⁶⁰⁾ 한국병합의 책임

59) 朴成壽 엮음, 『일본 교과서와 韓國史의 歪曲』, 民知社, 1982, 308~309쪽.

60)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외 8인, 『要說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1985, 174쪽. 1988년의 再訂版, 1992년의 3訂版의 174쪽에서도 같은 문

을 安重根義擧로 돌리는 듯한 서술방식의 역사교과서는 많았다.⁶¹⁾ 심지어 이때까지도 한국인의 의병운동과 安重根義擧를 연결시키고 않고 단순히 암살자의 행위인 것처럼 기술하기까지 하는 교과서도 있었다.⁶²⁾

반대로 확연히 바뀐 경우도 있었다. 山川出版社에서 발행한 1990년 판 교과서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1981년도 見本本の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입시켜 이를 확인해 보자.

한국병합 ... 한국민은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일본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였다. 1909년(명치 42)에는 전 한국 통감 伊藤博文이 한국의 민족운동가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정부는 **1910년(명치 43) 마침내 한국병합을 실행하고(일한병합조약), 여기를(81년판의 문장 : 그리고 伊藤博文暗殺事件을 계기로 하여 1910년(명치 43) 마침내 한국을 병합하여 ; 인용자) 일본의 영토로 삼고 조선총독부를 두어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였다.**⁶³⁾

1990년판 교과서는 1982년판과 달리 교과서에서 ‘계기로 하여’라는 내용을 생략한 가운데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술하며 安重根을 단순히 ‘한국 청년’이 아니라 ‘민족운동가’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계기로 하여’라는 용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위의 인용문과 달리 인과관계식 서술을 통해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도 표현에 미묘한 변화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즉, 1976년도 新版 ‘詳說’ 교

장이 그대로 나온다.

61) 예를 들어 한국인의 저항을 언급하면서도 ‘계기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병합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서술 태도를 들 수 있다. 江坂輝弥 竹內理三 小西四郎 외 3인, 『新日本史』, 自由書房, 1984, 247쪽. 이 교과서는 앞서도 인용한 自由書房의 1973년도판 책에서 드러난 생각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

62) 直木孝次郎, 『日本史 三訂版』, 實教出版株式會社, 1989, 277쪽.

63) 兒玉幸多 외 3인, 『新日本の歴史』, 山川出版社, 1990, 276쪽; 兒玉幸多 외 3인, 『新版日本の歴史』, 山川出版社, 1981(見本本), 193쪽.

과서에서는 ‘伊藤博文暗殺事件을 계기로’ 한국을 병합시켰다는 표현이 1982년도 見本本에서는 伊藤博文이 ‘한국 청년에게 암살당하자, 다음 해 한국병합을 실행’했다로 바뀌었다.⁶⁴⁾ 1983년판 교과서의 문장은 ‘詳說’ 계통의 1992년도 개정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⁶⁵⁾

이와 같은 새로운 징후들은 1982년 국제교과서과동 이후 일본 역사 교과서의 전반적인 개선과 맞물려 있기도 하였다. 즉, 대륙진출 보다는 대륙침략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중국침략, 한국침략이란 용어도 등장하였다. 아래 인용문에 제시된 三省堂의 1981년판과 1988년판 교과서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보자.

대륙진출(88년 판 문장 : 대륙침략 ; 인용자) ... 이처럼 일본의 **조선 진출**(88년 판 문장 : 한국침략 ; 인용자)에 대하여 한국정부 및 국민 사이에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②, 1909년 10월 전 통감 伊藤은 한국인 安重根에게 하얼빈 역에서 암살당하였다.

일본은, 한국민의 저항을 진압하는데 노력하면서 한국 병합을 서둘러 1910년(명치 43) 8월 일한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⁶⁶⁾

1982년 국제교과서과동 당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진출과 침략이란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었던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일본

64)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외 7인, 『詳說 日本史 新版』, 山川出版社, 1976, 282쪽 ; 井上光貞 笠原一南 兒玉幸多 외 10인, 『詳說 日本史 新版』, 山川出版社, 1982(見本本), 289쪽.

65) 井上光貞 笠原一南 兒玉幸多 외 10인, 『詳說 日本史 改訂版』, 山川出版社, 1985, 289쪽 ; 井上光貞 笠原一南 兒玉幸多 외 10인, 『詳說 日本史 再訂版』, 山川出版社, 1991, 289쪽 ; 井上光貞 笠原一南 兒玉幸多 외 10인, 『新詳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1988, 274쪽 ; 井上光貞 笠原一南 兒玉幸多 외 10인, 『新詳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1992, 275쪽.

66) 稻垣泰彦 외 3인, 『日本史 三訂版』, 三省堂, 1983, 261~262쪽 ; 稻垣泰彦 외 3인, 『日本史 三訂版』, 三省堂, 1988(見本本), 263~264쪽. 1981년에 제1판이 발행되었으며, 1989년에 발행된 책까지 문장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

의 조선침략과 억압적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이 강화된 경향 속에서 安重根에 관한 서술도 바뀌어 간 것이다.

3) 일본-‘한국병합’과 무관한 민족운동가 安重根의 의거(1993~)

安重根에 관한 1980년대의 새로운 서술 징후들은 1989년도 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된 교과서에서부터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내용으로 정착하였다.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계기로’라는 용어 사용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淸水書院의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자.

구판 : 전 통감 이등이 한국청년에게 하얼빈에서 암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계기로 1910년 한국병합을 강행하였다.

신판 : 전 통감 이등이 한국독립운동가 安重根에게 하얼빈에서 암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계기로’를 생략했다 ; 인용자) 1910년 8월 한국병합을 강행하였다.⁶⁷⁾

새로운 경향은 1993년에 검정을 신청하여 심사에서 통과되었다가 1995년에 東京書籍, 實教出版, 三省堂(2종), 淸水書院, 自由書房에서 발행한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⁸⁾ 1995년에 발행된 10종의 교과서 가운데 이러한 서술 경향을 거스르는 교과서는 없었다.⁶⁹⁾

마찬가지 변화는 山川出版社의 1994년판 ‘詳說’ 시리즈 교과서에서도 있었다.

67) 구판 : 『高校 日本史』, 1994, 183쪽 ; 신판 : 『詳解 日本史B』, 1995, 284쪽.

68) 君島和彦, 『教科書の思想』, すずさわ書店, 1994.

69) 泉原敦史, 「歴史教科書에 나타난 韓日關係 : 韓日併合과 安重根의 伊藤博文 처단의 記述에 대하여」 『21세기와 동양평화론』, 207~213쪽에 원문이 번역되어 있다.

일본 전 후 국제관계 ... 일본정부는 1909년(명치 42)에 군대를 증파하여 의병운동을 진압했는데, 그 와중에 伊藤博文 하얼빈역에서 한국의 민족운동가 安重根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헌병대를 상주시켜 한국의 경찰권도 빼앗았다**(굵은 글씨 ; 인용자). 이러한 준비 위에서 일본정부는 1910년(명치 43)에 한국병합을 행하여 식민지로 하고 조선총독부를 두었다.⁷⁰⁾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변화는, 1992년판까지도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서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安重根의 伊藤博文 저격 이후 부분에 ‘헌병대를 상주시켜 한국의 경찰권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새로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한국병합이 대한제국의 능력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술함으로써 ‘암살’과 ‘한국병합’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한편, 억압성도 드러낸 것이다.

1994년에 발행된 實敎出版과 自由書房의 日本史B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교출판의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자 이때부터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韓國廢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⁷¹⁾

더구나 1994년판 교과서의 특징은 암살의 주체로 安重根이란 이름을 직접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민족운동가’, ‘의병운동(투쟁) 지도자’라는 수식어가 안중근이란 이름 앞에 나왔다. 이때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安重根의 행동은 의병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관점에서 기술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그가 ‘암살자’라는 이미지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국병합’이 일본의 강압으로

70) 石井進 笠原一南 兒玉幸多 笹山晴生 외 11인, 『詳說 日本史』, 山川出版社, 1994, 289쪽. 332쪽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71) 이러한 서술경향은 宮原武夫 외 10인, 『日本史B』, 實敎出版, 1994, 170쪽 ; 江坂輝彌 외 6인, 『新日本史B』, 自由書房, 1994, 262쪽에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로는 坂本賞三 외 12인, 『新日本史B』, 第一學習社, 1994, 240쪽을 들 수 있다.



〈사진 1〉 일본 복장의 황태자(左)와
伊藤博文(右)

이루어진 것이라는 표현이 부각되는 경향과도 일치하였다.

1994년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서술 경향은 1999년판 역사교과서에서 더욱 확대되었다.⁷²⁾ 위에서 인용한 1994년판 내용은 山川出版社의 2004년판 ‘詳説’ 교과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1910년(명치 43)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하고 한국을 식민지화하고(한국병합)”라는 문장을 보강하여 ‘한국병합’의 강제성과 더불어 병합이 곧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킬 정도로 교과서 내용이 개선되었다.⁷³⁾

72) 자세한 내용은 이찬희 외 2인, 『연구보고 RR 99-7 일본·중국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9, 90~94쪽과 146~148쪽에 수록된 교과서 원문의 번역본을 참조하면 시사 받을 수 있다.

73) 石井進 五味文彦 笹山晴生 외 11인,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2002 檢定, 2004, 274쪽. 1997년에 검정을 신청하고 1999년에 처음 출판한 石井進 笹山晴生 외 14인, 『日本史A』, 山川出版社, 2004, 156쪽에서도 같은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서술경향은 山川出版社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검정을 받고 2004년에 발행된 모든 일본사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2003검정-石井進 五味文彦 笹山晴生 외 10인, 『高校 日本史B』, 210쪽; 大津透 久留島典子 藤田覺 伊藤之雄, 『新日本史B』, 288쪽; 高村直助 외 7인, 『日本史A』, 115~116쪽. 2002검정-鳥海靖 三谷博 度邊昭夫 외 1인, 『現代の日本史A』, 66쪽.

새로운 서술 경향은 사진 자료를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시기 伊藤博文에 관해 언급할 때 <사진 1, 2>와 같은 두 장의 사진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거의 사라졌다.



<사진 2> 한복을 입은 伊藤博文과 여성들

일본 교과서에서 두 사진 가운데 하나라도 수록한다면, <사진 1>은 보호자로서의 伊

藤博文의 이미지를, <사진 2>는 친한국적이고 조화로운 伊藤博文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통감부의 지배와 ‘한국병합’의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사실을 희석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1994년판부터 지금까지의 實敎出版 교과서는 안중근우표를 수록하고 있다.⁷⁴⁾

이와 같이 더욱 진전된 서술경향은 첫째, 1970년대 들어 자료가 발굴되어지고,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된 결과였다.⁷⁵⁾ 둘째, 1991년부터 1992년까지 한일 간의 첫 교과서 공동연구 모임이었던 일본의 일한 역사교과서연구회와 한국의 국제교과서연구소 사이에 교과서대화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⁷⁶⁾ 셋째, 새로운 서술경향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

74) 宮原武夫 외 10인, 『日本史B』, 實敎出版, 1994, 170쪽. 이후에도 實敎出版의 교과서는 여순감옥에 찍은 안중근 사진을 수록하였다. 宮原武夫 石山久南 외 14인, 『高校 日本史B』, 實敎出版, 2004, 183쪽 ; 『高校 日本史 A 新訂版』, 2007, 103쪽.

75)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趙珧, 「安重根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국근현대사연구』 12, 2000.3 참조.

니의 자기고백으로부터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비판 및 일부 일본사회의 자성 등과도 연관이 있었다.⁷⁷⁾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사실은, 일본정부가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모집과 운영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고노담화를 발표하는 등 1990년대 전반기에 과거사문제에 관해 약간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4. 최근의 서술경향－도달점과 한계

1) 한국－주목 받는 동양평화론

주지하듯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고등학교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으로 출판되었다. 모두 6종의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에 발행한 것이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3.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

의병운동이 시작되다 ... (인용자)

다시 불붙은 의병 항쟁 ...

전국적으로 확대된 의병 전쟁 ...

농민과 유생이 하나가 된 호남 의병 전쟁 ...

의사와 열사들의 항일투쟁 ...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하던 安重根은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

76) 두 조직의 공동 교과서 연구에 대해서는 辛珠柏, 「韓日間 歷史對話의 摸索과 協力모델 찾기(1982~1993)」 『韓日民族問題研究』 11, 2006.12 참조.

77) 자세한 것은 신주백,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 과거청산운동의 역사」 『역사문제연구』 14, 2005 참조.

다(1909). 安重根은 자신의 행위를 한국의 독립 주권을 침탈하고 동양 평화를 교란시킨 자를 처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78)

安重根의 행위가 한국의 독립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1979년 安重根의 「東洋平和論」이 미완성인 채 발굴되었지만, 그의 행위가 상당히 뜻 깊은 선택이었음은 점차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근대 사상의 변화를 이해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임이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⁷⁹⁾ 금성출판사의 서술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로서 북한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서술이다.⁸⁰⁾ 앞으로도 安重根의 행동을 애국심에 불타는 열혈 청년의 개인적 행위로만 치부하거나 투쟁의 측면만을 부각시키지 말고,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의 행위를 조명하고 역사교육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모두 이렇게 서술한 것은 아니다. 민족운동가 곧, 의병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처단’한 것으로만 서술한 교과서도 3종이나 된다.⁸¹⁾ 마찬가지로 서술경향은 북한의 역사교과서에서도 확

78)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95쪽.

79) 洪淳鎬, 安重根의 國際思想과 ‘東洋平和論’ 『社會科學論集』 13, 1993 ; 金鎬逸, 舊韓末 安重根의 東洋平和論 研究 『中央史論』 10·11, 1998 ; 中尾敏朗, 「安重根과 伊藤博文을 통하여 배우는 국제협조의 마음 : ‘동양평화를 위하여’의 구상」 『교육·생활과학논총』 2, 1999.

安重根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광호, 「安重根의 동양평화론과 그 성격」 『亞細亞研究』 46-3, 2003 ; 石田雄, 「伊藤博文의 ‘東洋平和’觀 : 安重根のそれと對比して」 『翰林日本學研究』 8, 2003 ; 한상권,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과 정치사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2003 ; 신운용, 「안중근 의거의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25, 2005.

80) 마찬가지로 내용은 주진오 외 4인,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96쪽 ; 유영렬 외 4인,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3, 80~81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1) 천재교육(104쪽), 대한교과서(80쪽), 범문사(82쪽)에서 발행한 한국근현대사

인할 수 있는데, 安重根은 북한에서 애국열사이다.⁸²⁾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安重根의 ‘伊藤博文 처단’을 반일의병투쟁 속에서 투사로서 언급하고 있다.⁸³⁾ 그러면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을 위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등장해야만 安重根義擧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체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인식인 것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 감정적인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처단’했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安重根은 伊藤博文을 저격하여 사살한 것이지 처단도, 암살도 아니었다.

3) 일본-일치 속에서의 미묘한 차이

2007년 현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8종이다. 여기에 2006년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까지 포함하여 최근의 서술 경향을 짚어보자.

중학교 교과서 8종 가운데 安重根의 義擧를 언급한 책은 6종이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저항의 한 과정으로 安重根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으며 한국병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적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특히 帝國書院에서 발행한 교과서에는 ‘국제’라는 코너를 두고 한국의 제5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인 1992년판의 책⁸⁴⁾에 소개되어 있는 安重根義擧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동년배 한국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일본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⁸⁵⁾ 다만,

교과서가 이렇다.

82) 안중근 남북한의 한국근현대사 관련 역사교과서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소개된 인물을 들라면 김옥균, 전봉준, 홍범도, 이준, 그리고 安重根이다. 『조선력사 - 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1994.

83) 『고등중학교 조선력사』 2(인물 편), 2002, 88쪽.

84)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하), 1992, 86쪽.

한국의 교육과정이 그 뒤로 두 차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10여년 이상 지난 교과서를 참조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전달한다는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서술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가장 채택률이 높은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安重根의 義舉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감부 시기 伊藤博文도 서술하지 않고 있다. 서술 분량과 표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의 저항과 이를 제압한 일본의 행위를 언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⁸⁶⁾ 扶桑社의 교과서에서도 같은 서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서 든 <사진 2>와 함께 “伊藤博文은 1906년 초대 한국통감으로서 부임했지만, 1909년 하얼빈에서 암살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⁸⁷⁾ 암살당한 사실 자체를 언급한 것은 東京書籍 교과서와 다른 점인데 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더구나 ‘韓國服의 伊藤博文’이란 제목으로 사진을 게재하고 있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인의 저항, 일본의 무력과 암살당한 사실을 연결 지어 사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인을 위해 노력한 伊藤博文이 누군가에게 암살당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이미지 형성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⁸⁸⁾

다음은 2006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9종 가운데 13종의 일본사, 세계사교과서에서의 서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째, 의병운동 속에서 安重根의 활동을 자리매김하였다. 단순히

85) 黒田日出男 외 7인, 『社會科 中學生の歴史 初訂版』, 帝國書院, 2006, 175쪽.

86)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2006, 160쪽.

87) 『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2006, 170쪽. 2002년도 판에도 같은 사진과 설명이 있다.

88) 200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은 신주백,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6 참조.

‘はげしい抵抗’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술 기조에서는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저격한 동기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진다. 다만, 극히 일부의 부교재에서 과거의 잔재가 확인된다. 즉, 2006년에 개정된 고등학생들 참고용 사료집 가운데 ‘해설’코너를 두고 “1910년(명치 42) 10월에는 伊藤이 하얼빈에서 安重根에게 사살 당하였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한국의 완전 식민지화를 꾀하여 1910년(명치 43) 8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한국병합안)을 체결하였다.”고 식민화과정을 서술한 책도 있다.⁸⁹⁾

둘째, 일본정부의 움직임이나 내각의 결정과정을 서술하고(實敎出版), 제2차 영일동맹 등 국제조약과 열강의 묵인 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山川出版社, 『現代の日本史A 改訂版』, 『詳説 日本史B 改訂版』).

셋째, 더불어 애국계몽운동도 함께 기술하는 경향도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 의병운동과 더불어 애국계몽운동도 언급한 교과서는 三省堂의 『世界史A』와 『世界史B』, 清水書院의 『高等學校 日本史A 改訂版』이 있다.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로는 山川出版社의 『現代の日本史A 改訂版』과 『詳説 日本史B 改訂版』이 있다.

넷째, 과거에는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사살’, ‘암살’했다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사살했다’, ‘사살 당했다’라고 쓰고 있다. 암살이란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三省堂 『世界史A』 뿐이었다. 安重根은 伊藤博文을 몰래 죽인 것이 아니므로 암살이란 말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교과서는 사건의 주어로 伊藤博文을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東京書籍의 『新選 世界史B』, 清水書院의 『高等學校

89) 坂本上三, 『詳録 新日本史史料集成』, 第一學習社, 2006.1, 361쪽. 이 책은 1991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2006년 발행본은 개정 제21판이었다. 필자가 참고한 다른 사료집 즉, 實敎出版의 『詳述 日本史史料集』과 東京書籍의 『詳解 日本史史料集』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日本史A 改訂版』, 山川出版社의 『現代の日本史A 改訂版』와 『詳説日本史B 改訂版』을 들 수 있다. 安重根이 주어인 경우는 實教出版, 『世界史B 新訂版』와 『高校 日本史A 新訂版』이다. 주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安重根의 의도와 일본의 침략성에 관해 일본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학습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중요하다. 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표현방식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한일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에서는 安重根義擧와 그것을 전후한 시기에 安重根과 관련된 기술, 安重根義擧의 또 다른 표현인 伊藤博文狙擊事件과 韓國併합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기술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통해 검토하였다.

두 나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安重根義擧에 대한 서술은 한국의 경우 1974년 교과서부터, 일본의 경우는 1994년경 교과서부터 확연히 바뀌었다. 이제 두 나라 역사교과서에서는 민족운동가로서의 安重根의 이미지와 그의 행위가 의병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서술이 정착되었다.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가운데 安重根義擧가 한국병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서술도 없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역사교육에서는 安重根의 정치적 견해를 더욱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민족운동가로서의 安重根이 자칫 투쟁만 했던 싸움꾼이란 단순 이미지로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물을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확실히 기술하는 것이 학생들의 다면적 사고를 끌어

내는데 필요하다. 이것이 입체적인 역사교과서 만들기의 일환이다.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부터 安重根이 한국독립만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해 伊藤博文을 저격했다는 관점의 도입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安重根과 伊藤博文은 아주 상반된 삶을 살았고, 두 나라 근대사의 대립된 진로만큼이나 자국의 역사교과서와 상대방의 역사교과서에서 달리 언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들은 서로를 ‘어리석은 놈’과 ‘奸雄’으로 지칭하였다. 후대의 사람들도 상대방 측 사람을 ‘암살자·테러리스트’ 대 ‘침략의 선봉장’으로 보고, 자신들의 사람을 ‘민족의 영웅’ 대 ‘明治의 元勳(근대의 아버지)’로 평가하고 있다.⁹⁰⁾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安重根이 제국주의 일본의 무력침략에 맞서 한국인 운동가로서 싸웠다는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거나 왜소화해서는 안 된다. 일본제국주의에 맞서면서 목숨을 던진 安重根의 행위를 ‘폭력’이라고만 단순화하고 왜곡시킬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인도 간디의 비폭력 자치운동이 영국제국주의에 맞서기에는 ‘낭만적 정치운동’의 성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듯이,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비폭력만을 무조건 긍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伊藤博文에 관한 서술을 빼버릴 수는 없다. 명치국가의 역사에서 伊藤博文의 행적을 지우는 것은 일본 근대사의 결정적인 부분을 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伊藤博文을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근대사를 설명할 수 없

90) 2006년과 2007년도 일본의 중고교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가운데 伊藤博文을 가장 확실히 띄우고 있는 책은 扶桑社 교과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란 우익단체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인물칼럼’이란 특별 코너를 한 쪽 분량으로 만들어 그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애국자로 묘사하고 있다(『改訂版 新しい歴史教科書』, 2006, 162쪽). 그러나 扶桑社版 교과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과 한국인과 중국인의 피해를 시야에 넣고 있지 않다.

듯이, 한국의 安重根을 빼놓고 1900년대 후반의 항일운동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과연 역사인식의 공유는 가능할 것인가. 역사화해는 이를 수 있는가.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당대의 사실을 정리하고 자리매김하는 태도가 확고하다면, 그리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진다면, 앞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최근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安重根에 관한 연구에서 영웅으로서의 安重根이 아니라 “安重根이란 개인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와 국제관계 그리고 반제국주의운동이 좀 더 잘 이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까지도 밝히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⁹¹⁾

논문투고 : 2007. 3. 20

심사완료 : 2007. 4. 7

91) 趙瑠, 「安重根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국근현대사연구』 12, 2000.3 참조.

【ABSTRACT】

The Fluid National Memories of Korea and
Japan

—The Portrayal of Ahn Jung-geun, Ito Hirobumi
(伊藤博文) and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1945~2007)—

Sin, Ju-Back

This paper is a diachronic comparative study of how Korean and Japanese textbooks have portrayed the period of Ahn Jung-geun's patriotic deed of October, 1909 an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portrayal of Ahn Jung-geun's patriotic deed changed noticeably in the Korean textbooks beginning in 1974, and in the Japanese textbooks around 1994. Understanding Ahn Jung-geun as a nationalist activist and his tactic as a part of the irregular military movement has become dominant in the narrative. Moreover, Japanese textbooks no longer attribute Japan's annexation of Korea to Ahn Jung-geun's deed.

However, the history education curricula of the two countries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to convey Ahn Jung-geun's political views more accurately to their students. They need to move beyond the image of Ahn Jung-geun as

merely an anti-Japanese militant to introduce the viewpoint that his purpose of shooting Ito Hirobumi was to establish “Peace in East Asia.”

What he did was a heroic act of self-sacrifice defying imperialism which was the mobilizing order of the most violent country in the history of mankind. To evaluate his deed today in terms of violence is to disregard its historical context. Future studies on Ahn Jung-geun should attempt to illuminate his contemporary socie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nti-imperialist movement as well as universal human values.

【key words】

Memory, Ahn Jung-geun, Ito Hirobumi, history education, history textbook, education curriculum, 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 Japan-Korea relations